



이승훈(왼쪽)이 이끄는 스피드스케이팅 남자대표팀은 18일 강릉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에서 열린 팀추월 준준결승을 전체 1위의 성적으로 통과해 준결승에서 비교적 수월한 상대인 뉴질랜드를 만나게 됐다. 대표팀의 승리 키워드는 스피드와 조직력이다. 강릉 | 김홍원 기자 won@donga.com

지금 느낌 그대로...형님 끌고 아우님 밀고 '금빛 팀워크'

이승훈-김민석-정재원 완벽 호흡 과시
준준결승 전체 1위 통과...메달 기대감
여자 팀추월은 전체 7위...준결승 좌절



2018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팀추월에 출전한 이승훈(30·대한항공)-김민석(19·성남시청)-정재원(17·동북고)은 탄탄한 팀워크를 바탕으로 올림픽 2대회 연속 메달을 향한 첫 단추를 완벽하게 끼웠다. 18일 준준결승을 전체 1위의 성적으로 통과한 덕분에 토너먼트 방식으로 치러지는 준결승에서 한층 유리해졌다. 준결승 상대는 준준결승을 4위로 통과한 뉴질랜드다.

준결승 전체 1위의 성적은 그 자체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번 대회 팀추월 준준결승은 토너먼트 방식이었던 4년 전 소치대회와 달리 가장 좋은 기록을 낸 4팀이 준결승에 오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국은 준준결승에 나선 8개국 중 가장 빠른 3분39초29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3분40초 이내로 끝난 유일한 팀이었다. 이는 단순히 포디움에 서는 것을 넘어 금메달을 기대하게 하는 지표다.

● 페이스 조절 없는 준결승, 1위는 혼장이다!

이번 대회 준결승은 맞대결 승리 시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는 과거 방식과는 성격이 달랐다. 기록이 빠른 순서대로 4팀이 준결승에 오

기에 맞대결 승리는 큰 의미가 없었다. 준결승 3조에서 캐나다(3분41초73)를 제친 일본(3분41초62)의 탈락이 좋은 예다. 상대의 페이스에 관계없이 무조건 전력으로 달려야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는 경기 방식을 고려하면, 한국의 준결승 1위는 그만큼 큰 의미를 지닌다. 1위를 차지한 덕분에 강호 네덜란드(2위·3분40초03)가 아닌 뉴질랜드(3분41초18)와 준결승을 치르는 행운도 따라왔다. 뉴질랜드는 중장거리의 강자 피터 마이클(29)이 버티고 있지만, 나머지 선수들과 기량차가 크다. 소치동계올림픽 우승 멤버인 스펀 크라머(32)-안 블록하위넬(29)-코엔 베르베이(28)가 그대로 출전한 네덜란드와 견주 한 수 아래의 상대임은 분명하다.

● 전략 100% 성공, 키워드는 '지금 느낌 그대로'

"빠르게 끌어라!" 대표팀 맹행 이승훈이 짙은 팀추월에서 성공하기 위한 키워드다. 이 전략은 준결승에서 100% 적중했다. 이승훈은 최대 강점인 지구력을 앞세워 김민석과 정재원을 리드했고, 결승선에 가까워질수록 무겁게 속도를 끌어올렸다. 한 바퀴를 남겨둔 상황에서 당시 1위였던 1조의 노르웨이(최종 3위·3분40초09)에 0.03초 뒤졌지만, 막판 스피드를 통해 오히려 0.8초 앞서게 됐다. 서로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며 상황에 맞는 스케이팅을 한 결과다.

● 탄탄한 조직력에 주목하라!

완벽한 조직력은 팀추월에서 가장 중요한 요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대표팀 김보름이 19일 강릉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에서 열린 네덜란드와의 준준결승전 직후 허탈한 표정으로 기록을 살펴보고 있다. 강릉 | 김홍원 기자

소다. 캐나다와 네덜란드의 준결승 경기를 보면 조직력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알 수 있다. 이번 대회 1만m 금메달, 5000m 은메달리스트 테드-안 블로르(32)를 앞세운 캐나다는 조직력에서 문제점을 노출하며 7위에 그쳤다. 강력한 우승 후보로 손꼽히는 네덜란드도 베르베이

와 블록하위넬이 크라머의 스피드를 따라가지 못한 탓에 간신히 2위로 준결승에 올랐다. 반면 한국은 세 명의 호흡이 완벽했다. 누군가 힘에 부칠 때 다른 한 명이 뒤로 빠져서 밀어준 모습이 그 본보기다. 그만큼 선수들의 컨디션이 좋다는 의미다. 준결승 직후 "모든 경기가 다 끝나고 인터뷰를 하겠다"던 이승훈의 한마디가 이를 설명하는 한 단면이다. 팀추월 준결승과 결승은 21일 강릉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에서 열린다.

● 여자대표팀, 역주에도 탈락 고배

한편 김보름(25·강원도청)-박지우(20·한국체대)-노선영(29·폴킴팀)이 출전한 여자 팀추월 대표팀은 19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준결승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1조에서 세계 최강 네덜란드와 레이스를 펼친 대표팀은 결승선까지 두 바퀴를 남겨두고 앞선 두 명과 세 번째 주자 노선영의 차이가 벌어지는 바람에 3분03초76의 기록으로 끝났다. 4바퀴를 돌 때까지 꾸준히 14초대의 랩타임을 유지했지만, 마지막 구간에서 무려 16초77까지 치솟았다. 2조의 일본(2분56초08)과 중국(3분00초01)이 모두 한국보다 빠른 기록으로 끝내 4위로 내려앉았고, 3조의 캐나다가 2분59초03으로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결국 순위결정전으로 밀려나게 됐다. 최종순위는 8개국 중 7위. 여우곡절 속 올림픽 무대에 서게 된 노선영은 포기하지 않고 역주했지만, 벌어진 격차를 줄이지 못했다.

강릉 | 강신 기자 posterboy@donga.com

벼랑 끝 백지선호 반전의 시작 될까

오늘 핀란드와 8강행 놓고 단판 PO 치러
여자 아이스하키는 스웨덴과 7·8위 결정전

최후의 일전일까, 반전의 시작일까. 슬한 드라마를 써내려갔던 대한민국 남자아이스하키가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벼랑 끝에서 다시 한번 기적을 꿈꾼다.

백지선(51)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20일 강릉하키센터에서 세계랭킹 4위 핀란드와 단판 플레이오프(PO)를 치른다. 승자는 8강 진출이라는 전리품을, 패자는 대회 마감이라는 아픔을 안게 된다.

힘든 여정이었다. 백지선호는 A조 예선에서 체코~스위스~캐나다를 차례로 만났다. 결과는 3전 전패. 그러나 경기력은 기대 이상이었다. 1-2로 졌던 체코전에서는 올림픽 사상 첫 골을 터뜨리며 선전했고, 강력한 우승후보인 캐나다를 상대로도 4점만 내주며 준수한 수비력을 자랑했다.

비록 예선에선 첫 승을 거두지 못했지만 아직 실망하기엔 이른 감이 있다. 핀란드전에서 감격의 1승을 거두는 순간 8강 무대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백 감독은 일전을 하루 앞둔 19일 강릉하키센터에서 결연한 분위기 속에 최종훈련을 소화했다.

선수들의 의지도 다부졌다. 2013년과 2014년, 핀란드 유학생활을 경험한 신상훈(25·삼무)은 "사실 상대가 누가 될지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이기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핀란드전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각오를 안고 뛰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세라 머레이(30·캐나다) 감독이 이끄는 여자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도 관동하키센터에서 이번 대회 마지막 훈련을 마쳤다. 단일팀은 20일 스웨덴과 벌이는 7·8위 결정전을 끝으로 평창올림픽을 마무리한다.

북한선수들과 작별을 앞둔 머레이 감독은 "대회가 끝난 뒤에도 (북한 선수들이 머무는) 26일까지 북한선수들을 지도할 계획이다. 북한 박철호 감독과도 훈련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친선경기 등을 통해 계속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한 뒤 "평소에는 잘 울지 않는 편인데 북한 선수들과 헤어지게 되면 눈물이 날 듯하다"며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강릉 | 고훈준 기자 shulout@donga.com

건재함 과시나, 이번 희생양이냐...황제들의 올림픽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후반부로 치닫고 있다. 92개국 2925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이번 올림픽은 역대 최대규모의 올림픽인 만큼 화제도 쏟아지고 있다.

화려한 경기력으로 평창을 수놓는 스타들은 대회 초반부터 중반까지 저마다의 기량을 뽐내며 각자 출전한 종목에서 다양한 기록들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당초 압도적인 기량으로 올림픽 챔피언 등극이 유력했던 후보들은 예상된 시나리오대로 금메달의 주인공이 되면서 화려한 즉위식을 올렸다.

그러나 이들 중에서는 '1위'의 부담감을 이겨내지 못한 이들도 있다. 시상대에 오르지 못하며 이번의 희생양이 된 선수 또한 적지 않다.

● '예상된 시나리오' 황제들의 올림픽 즉위식

이번 대회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금메달을 획득할 것이라 꼽혔던 주인공은 바로 '천재 스노보더' 클로이 김(18·미국)이었다. 그는 12일 휘닉스 스노경기장에서 열린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98.25점이라는 뛰어난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완전한 독주였다.

남자 스노보드 중에서는 손 화이트(32·미국)가 역시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97.75점이라는 성적을 내 왕좌에 올랐다. 개인 올림픽 세 번째 우승을 달성하며 '정점'의 건재함을 과시했다.

우리 대표팀에서는 최민정(20·성남시청)과 윤성빈(24·강원도청)이 부담감을 이겨내고 금메달을 가져왔다. 최민정은 17일에 열린 여자 쇼트트랙 1500m에서 특유의 질주본능을 앞세

워 여유 있게 결승선을 1위로 통과했다. 500m에서 당한 실격의 아쉬움을 떨쳐내며 모처럼 환하게 웃었다. '스켈레톤 황제' 윤성빈은 16일인 설날 아침에 우리 국민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안겼다. 세계랭킹 1위인 그는 홈트랙의 이점까지 십분 살려 1~4차 주행 내내 압도적인 성적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올림픽 슬라이딩 센터에서 세운 트랙레코드(50초02)는 팀이었다.

● '아니 내가?' 이번의 희생양 된 스타들

예상할 수 있으면서도 예측할 수 없는 게 바로 스포츠다. 이번 평창올림픽에서는 예상된 시나리오에서 벗어난 이들도 적지 않다. 소위 '이번의 희생양'이 된 스타들의 이야기다.

윤성빈 이전에 '스켈레톤 황제' 타이틀을 가

최민정·클로이 김 등 예상대로 금메달
린지 본 부진·두쿠르스 노메달 이번도

지고 있던 마르틴 두쿠르스(34·라트비아)는 평창에서 단 한 개의 메달도 가져가지 못했다. 3차 주행까지 순항하며 2위에 올라 있었으나 마지막 4차 주행에서 뛰어난 실수를 범해 최종 5위로 이번 올림픽을 마감했다.

'실상 여왕'으로 불리는 린지 본(34·미국)은 다관왕을 향한 발걸음에 제동이 걸렸다. 17일 열린 알파인스키 여자 슈퍼대회전에서 스노보드 출신인 에스터 레데츠카(23·체코)에게 금메달을 내주며 고개를 숙였다. 전체 6위에 그쳐 동메달조차 가져가지 못했다. 루지의 최고봉 자리를 꾸준히 지키던 펠릭스 로흐(29·독일)는 올림픽 3연패에 실패했다. 두쿠르스와 마찬가지로 4차 주행에서 뛰어난 실수를 범하며 최종 5위에 머물렀다.

강릉 | 정은성 기자 award@donga.com